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들려주는

뇌종양

박철기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BRAIN TUMOR

잦은 두통, 뇌종양의 신호인가요?
뇌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종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가 들려주는

뇌종양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가 들려주는

뇌중앙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0일

지은이 박철기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912-2 04510
978-89-521-1498-3 (세트)

© 박철기,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가
들려주는

뇌종양

박철기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간사

첨단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 눈부신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한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Health⁺ 시리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근거가 빈약한 의학 정보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며 표준화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위암을 시작으로 유방암, 간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 질환과 각종 질병까지 의료진이 오랜 기간 걸쳐 축적해 온 경험과 의학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질환별로 증상, 진단,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 최고 명의

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 건강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 건강을 계획하며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독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Health⁺ 시리즈를 다양한 질병으로 확장해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원고 집필 교수진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진에게 감사드리며, Health⁺ 시리즈 발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길잡이로서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이 책을 펴내며

이 책의 집필을 의뢰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시작을 미루던 차에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의료계 전체를 삼켜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종합병원의 전공의, 전임의가 병원을 떠나며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다. 필자와 같은 외과의사이자 교수는 수술이 줄고 교육의 의무가 사라지면서 의외로 시간 여유가 생겼다. 물론 치료가 시급한 악성 뇌종양 환자의 수술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다른 의료진에게 의존했던 모든 일을 홀로 도맡아 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입원부터 수술, 퇴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돌보면서 환자들의 고충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쪼록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옳은 길로 변화해 있기를 바라는 마

음이다.

과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는 스토리라인에 뇌종양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일반인에게 뇌종양은 무시무시한 병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내 경험으로도 뇌종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걱정 때문에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로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나 뇌종양 중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완치가 어려운 치명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종양의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성장을 거의 멈추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평생 무증상으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다른 장기의 암종과 달리 뇌암 대신 뇌종양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 이유도 양성 종양의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 책은 뇌종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뇌종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다른 암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희귀질환인 뇌종양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성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뇌종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치료가 어려운 뇌종양 환자의 경우 불안한 마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잘못된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경험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맹신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아무리 온라인 소통법이 일반화된 사회라 해도 자신의 병을 마치 맛집을 고르거나 물건을

살 때처럼 입소문이나 리뷰, 댓글에 의존해 치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쪼록 이 책이 짧은 진료시간 탓에 질문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뇌종양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본인들의 전문 영역을 세세하게 검토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피지훈, 김용휘, 김민성 교수님께 감사를 전한다.

2024년 11월

박철기(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차례

발간사	4
이 책을 펴내며	6
01 뇌종양이란?	13
02 뇌종양의 발생률	17
03 뇌종양의 증상과 진단 방법	21
04 뇌종양의 확진: 조직학적 진단과 유전학적 검사	29
05 뇌종양의 악성도	33
06 뇌종양과 함께 살아가는 법	37
07 뇌종양 치료의 시작: 수술	41
08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45
09 대표적인 뇌종양 ①: 뇌수막종	51
10 대표적인 뇌종양 ②: 뇌하수체선종	57



11	대표적인 뇌종양 ③: 신경초종	63
12	대표적인 뇌종양 ④: 신경교종	69
13	대표적인 뇌종양 ⑤: 림프종	83
14	소아·청소년기의 뇌종양	87
15	뇌종양 치료의 후유증	91
16	뇌종양의 재발과 전이	97
17	악성 뇌종양의 극복 사례	99
	뇌종양에 대한 궁금증	103



Health⁺
BRAINTUMOR



⊕ 뇌의 구조와 뇌종양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는 단단한 두개골을 비롯해 두개골을 둘러싸는 두피와 근막, 두개골 내부의 비교적 질긴 뇌수막(경막)에 의해 보호받는다. 뇌수막 안에서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에 등등 떠 있다. 뇌 내부에는 뇌척수액이 물주머니 형태로 모여 있는 뇌실이라는 공간이 있고 뇌실은 2개의 측뇌실과 제3뇌실, 제4뇌실이 연결되어 있다. 뇌척수액은 뇌실에서 생성되어 지속적으로 중추신경계 전체를 순환하면서 정수리 부근의 뇌수막에 위치한 정맥동으로 흡수된다.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로 나뉜다. 대뇌와 소뇌의 연결 부위인 중뇌 및 뇌간에서는 12쌍의 뇌신경이 나와 두개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뇌종양을 의심해야



뇌종양...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흔히 불치병으로 알려진 뇌종양, 정말 완치는 어려울까?

증상과 진단부터 치료, 수술 후 관리까지 뇌종양에 관한 모든 것

뇌종양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이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 두통, 구토, 현기증, 인지기능 저하, 시력 장애, 언어 장애,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악성 뇌종양은 치료하지 않는다면 3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불치병이라는 오명을 쓴 뇌종양,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치료법을 알아본다.



값 13,000원

ISBN 978-89-521-3912-2 04510

978-89-521-1498-3 (세트)